
저자 (Authors)	홍순길 Soon-Kil Hong
출처 (Source)	헤세연구 10 , 2003.12, 14-24 (11 pages) Hesse-Forschung 10 , 2003.12, 14-24 (1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헤세학회 Koreanische-Hesse-Gesellschaft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396682
APA Style	홍순길 (2003). 헤세의 여성상. 헤세연구, 10, 14-24.
이용정보 (Accessed)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165.***.117.111 2017/11/07 17:0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헤세의 여성상

홍 순 길 (목원대)

I.

헤세는 그의 삶과 작품을 통해서 여성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헤세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여성관을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는 여자 형제들 사이에서 자랐으며 늘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의 세계에 기우는 경향을 지녔다.¹⁾ 그는 성인이 되어 결혼을 세 번이나 할 정도로 여성과의 밀접한 삶을 살았다. 그런가 하면 그의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 대개 남자 주인공들인데 - 여성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지고 여성들과의 교류를 통해 점차 성숙한 한 개체로 자기실현에 이르게 된다. 그의 대부분의 소설들은 여인들과의 사랑과 이별을 다룬 연애 소설이며 여인을 통해 주인공이 발전해 나가는 교양소설 내지 발전소설이다. 헤세의 작품에서의 이런 여성과의 사랑의 이야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어떻게 여성을 통해 성숙되는 가를 보여 준다는 데 더 그 의미가 있다.

헤세의 작품에서는 여성문제는 주로 남성과 여성,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과 같은 양극적인 형태로 다뤄지고 있다. 헤세는 이런 양성적인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는 데, 인생이나 예술이 이런 모성적인 것과 부성적인 세계의 결합이라고 보았다.

[...] 예술은 부성적인 것과 모성적인 세계, 정신과 찌꺼기의 결합이었다. 그것은 가장 감각적인 것에서 시작할 수 있었고 가장 추상적인 것으로 이끌거나 어떤 순수한 이념 세계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고 피가 도는 육체 속에 끝낼 수 있다.

[...] die Kunst war eine Vereinigung von väterlicher und mütterlicher Welt, von Geist und Blut, sie konnte im Sinnlichsten beginnen und ins Abstrakteste führen oder konnte in einer reinen Ideenwelt ihren Anfang nehmen und im blutigsten Fleische enden.²⁾

이런 양성적 구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나는데, 아버지는 대개 ‘정신 Geist’, ‘권력가 Machthaber’, ‘재판관 Richter’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³⁾ 반면에 여성은 주로 상징적으로 ‘어머니 Mutter’나 ‘태모 Urmutter’로 나타나고 있고 그밖에도 물, 강, 대지 등의 사물 상징이나 삶과 죽음 등의 주체적 상징으로 나타난다. 어머니는 ‘자연 Natur’, ‘고향 Heimat’, ‘죽음 Tod’ 등을 의미하며 내면적 꿈과 동경과 충동의 세계를 나타낸다.⁴⁾ 어머니는 모든 것을 용서하며 위로하는 사람으로 또는 악의 세계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한 발자국만 내딛던

1) Vgl. Eugen Barhausen: Der Dualismus von Geist und Sinnlichkeit im Hermann Hesses Werk. Diss. Berlin 1952. S. 46.: “In dem Dualismus von Vater und Mutter, den er als Kind einst ahnte, neigte er schon immer inniger zur Mutter. Diese wird ihm nun zum Symbol alles Suchens und Begehrens, zum Symbol aller Neuwerdung; sie ist Bedrohung, solange er ihr Geheimnis noch nicht kennt, weil die Welt des Vaters ihn überformt und gebunden hat.”

2) Hermann Hesse: Narziß und Goldmund. In: Gesammelte Werke Hermann Hesses in 12 Bänden. Frankfurt/Main 1970. Bd. 8. S. 174f.(앞으로는 GW로 표기하며 그 뒤의 숫자는 권수를 뜻함) 또한 헤세의 시 ‘Besinnung’에는 모성과 부성 사이에서 헤메는 인간존재가 잘 묘사되어 있다. Vgl. Hermann Hesse: Besinnung. GW 1. S. 104.

3) Vgl. Hermann Hesse: Kinderseele. GW 5. S. 14.: “Unten in unserer Wohnung waren Mutter und Kind zu Hause, dort wehte harmlose Luft; hier oben wohnten Macht und Geist, hier waren Gericht und Tempel und das ‘Reich des Geistes’.”

4) Vgl. Hermann Hesse: GW 1, S. 52, 62, 64, 66, 78, 83, 91.

지 손을 내 밀면 구원을 주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헤세가 흔히 부르는 ‘어머니’는 모든 여성적인 것을 뜻하는데 어머니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출발점이며 또한 귀착점으로 나타난다.

헤세의 초기 작품 『한밤중 뒤의 한 시간 Eine Stunde hinter Mitternacht』에서부터 만년의 시와 소설의 주요 주제는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간에 어머니를 동경하며 찾고 사랑하며 결국은 자기실현에 이르는 것이다. 한스 루돌프 슈미트 Hans Rudolf Schmid는 이런 “존재의 심연을 지나 집으로, 여성으로 향하는”⁵⁾ 인간상이 헤세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공들의 모습이라고 하였다. 헤세가 어머니의 생일 75 번째 생일을 위해 자비 출판한 『낭만적인 노래 Romantische Lieder』 역시 비현실적인 마리아와 게르트루트 부인에게 바쳐진 것으로써 미지의 여성에 대한 동경에서 나온 시집이다.

어머니는 남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종착점이다. 어머니 없이는 사랑할 수도 죽을 수도 없다. 『나르치스와 골트문트 Narziß und Goldmund』에서 골트문트의 가장 비밀스러운 꿈은 어머니 상을 제작하는 일이었는데 그는 죽음에 이르러 비로소 어머니에게 이르렀다.

나는 자네에게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였네. 어머니의 형상을 그리는 것은 여러 해부터 내가 가장 즐겨하고 가장 비밀에 가둬 찬 꿈이었네. 어머니 상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상들 가운데서 가장 성스러운 것이었네. 나는 늘 그것을 내 마음 속에 품고 다녔네. 사랑과 비밀에 가득 찬 형상을. [...] “그러나 나르치스, 만일 자네가 어머니가 없다면, 자네는 어떻게 죽으려 하는가? 어머니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네. 어머니 없이는 죽을 수도 없다네.”

Ich wollte dir von der Mutter erzählen. Es ist seit manchen Jahren mein liebster und geheimnisvollster Traum gewesen, ein Figur der Mutter zu malen, sie war mir das Heiligste von allen bildern, immer trug ich es in mir herum, eine Gestalt voll Liebe und voll Geheimnis. [...] “Aber wie willst denn du einmal sterben, Narziß, wenn du doch keine Mutter hast? Ohne Mutter kann man nicht lieben. Ohne Mutter kann man nicht sterben.”⁶⁾

이렇듯 헤세의 여성예찬 내지 여성추구는 그의 문학 세계의 핵심적인 모티브이다.⁷⁾ 헤세의 작품 세계에서 이렇게 여성을 비중 있게 부각시킨 것은 여러 영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일상적 삶 속에서 여성과 헤세의 관계를 들 수 있다. 헤세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거치는 동안 그의 어머니 마리 헤세가 준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보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언급될 것이다. 그 이외에는 문학적 접근으로서, 글쓰기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들 수 있겠는데, 문학 지망생으로서 뮤즈 여신과의 내면적 창조적 교류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초기의 작품 『한밤중 뒤의 한 시간』에서 수많은 낮과 밤 동안 불안과 두려움과 수줍음 속에서 그려낸 여인상이 - 그것이 그를 성숙한 작가로 만들었지만 - 그의 작품의 원류를 형성했을 것이다. 헤세의 상상 속의 여성인 ‘여왕 Konigin’, ‘게르트루트 부인 Frau Gertrud’, ‘포르투나 Fortuna’, ‘블론델 Blondel’, ‘엘리제 Elise’ 등 많은 여인들은 난파된 1인칭 주인공에게 삶과 꿈과 소망을 주었고, 마침내 그는 열렬한 뮤즈 여신의 미소를 받게 된다. 뮤즈 여신과의 만남을 통해 그는 소망하던 작가로 태어나 음률을 다듬고 우화를 지어낼 수 있게 된다.⁸⁾

또 다른 영향은 헤세가 낭만주의에서 받은 영향을 들 수 있다.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낭만주의 경향을 가진 헤세 역시 여인에 대한 우아한 감상을 그의 작품 속에 그리고 있다. 노발리스에게는 푸른 꽃이라면 헤세에게는 붓꽃이 여인에 대한 동경의 상징일 것이다. 낭만주의에서 여인들이 동경과 찬미의 대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⁹⁾

5) Hans Rudolf Schmid: Hermann Hesse. Frauenfeld 1928. S. 10f.

6) Hermann Hesse: Narziß und Goldmund. GW 8. S. 319f. 또한 「허무 Vergänglichkeit」라는 시에는 영원한 어머니가 죽은 자의 이름을 허공에 쓴다는 시귀가 있다. Vgl. Hermann Hesse: Vergänglichkeit. GW 1. S. 70.

7) 슈미트도 “그의 어머니 추구가 그의 예술성의 본질적인 조건”이라고 하였다. Vgl. Hans Rudolf Schmid: Hermann Hesse. a.a.O., S. 153.

8) Vgl. Hermann Hesse: Eine Stunde hinter Mitternacht. GW 1. S. 182.

9) 낭만주의에서의 여성관에 대해서는 Kurt Weibel: Hermann Hesse und deutsche Romantik. Diss. Winterthur 1954; E. A. Felix Lutzkendorf: Hermann Hesse als religiöser Mensch in seinen Beziehungen zur Romantik und zum Osten. Diss. Leipzig 1932; Paul Kluckhohn: Das Ideengut der deutschen Romantik.

II.

마울브론으로부터의 “천재 여행 Geniereise”¹⁰⁾ 뒤에 헤세는 정신병 진단을 받고 바트 볼 Bad Boll의 블름하르트 목사에게 보내졌다. 그는 의붓형 테오도르가 하숙하고 있던 콜프 부인의 딸, 7살 연상의 오이게니 콜프 Eugenie Kolb를 짝사랑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권총을 구입해 자살하려고까지 하였다. 그리고 튜빙엔의 헤켄하우어 서점 조수로 일할 때 사귀었던 헬레네 보이크트 Hellene Voigt에게 다시 한번 빠져들었으나 그녀 역시 곧 어느 출판업자와 결혼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몹시 상심하였다.

그러나 헤세는 꾸준히 꿈의 여성을 찾아 나섰다. 1899년 그가 22세 때 문학클럽 ‘petit cénacle’의 회원들과 함께 울리 헬만 Julie Hellmann이 여급으로 있는 ‘크로네 Krone’ 음식점에 자주 드나들었고, 그녀에게 연정을 품었으나 그녀 또한 짝사랑하는 동화 속의 공주로만 남아 있었다.¹¹⁾ 루루에 대한 짝사랑의 상처가 아물 무렵 헤세는 독일을 떠나 바젤의 라이히 서점 점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는 아버지의 친지 루돌프 바커나겔 Rudolf Wackernagel의 집에서 엘리자베트 라 로헤 Elisabeth La Roche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헤세는 그녀의 사랑을 얻기에는 너무 수줍음을 타는 슈바벤의 몽상가였다. 그는 그녀에 대한 사랑을 오직 시나 소설로 써서 위안을 삼을 뿐이다.

1903년이 되어서야 헤세의 공상적이고 실현되지 않은 짝사랑은 막을 내리고 그녀의 첫 부인이 된 마리아 베르누이 Maria Bernoulli와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현실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비록 짝사랑이 한 때의 꿈이었지만 그는 그런 수동적인 짝사랑의 고통 속에 한 여인을 사랑하여 결혼 생활을 영위할 만큼 성숙하게 되었다. 그의 작품 『페터 카멘진트 Peter Camenzind』에 이런 과도기적 심경이 잘 나타나 있다.

나는 예전에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즐거움일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지금 그런 응답이 없는 자신을 바치는 사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낯선 여인이 나를 사랑하고 남자로 원했다는 사실에 대해 조금은 기뻐다.

Fruher hatte ich geglaubt, es müsse ein besonderes Genuß sei, geliebt zu werden, ohne selbst zu lieben. Ich hatte jetzt erfahren, wie peinlich eine solche sich anbietende Liebe ist, die man nicht erwidern kann. Und doch war ich wenig stolz darauf, daß eine fremde Frau mich liebte und zum Manne wunschte.¹²⁾

헤세는 성공한 직업 작가로 보덴 호수가의 가이엔호펜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으며 그의 소원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은 다 이루어진 셈이다. 말하자면 13세 때 “작가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안 되겠다”고 결심한 이래로 그는 수많은 우회로를 통해 목표에 도달했다. 그리고 몽상과 비현실적인 여인에 대한 동경으로 지쳐 있는 그에게 나타난 첫 부인 베르누이는 지금까지의 그의 모든 방랑을 끝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그는 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나 헤세는 현실에 안주 못하는 방랑자이었다. 그는 한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집을 짓고 정원을 갖는 농부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일종의 “농부 흉내내기”¹³⁾는 몇 년이 채 안되어서 끝장이 났고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에 염증을 느껴”¹⁴⁾ 가정과 부인과 자녀를 버리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곤 하였다. 그는 가장과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헤세라기

Halle/Saale 1941 참조.

10) Hermann Hesse: Großvaterliches. GW 10. S. 309.

11) 여기에 대해서는 『헤르만 라우셔 Hermann Lauscher』 가운데 ‘루루 Lulu’라는 제목으로 그 당시의 체험이 잘 묘사되어 있는 글이 있다. Vgl. Hermann Hesse: Lulu. ein Jugenderlebnis, dem Gedächtnis E.T.A. Hoffmanns gewidmet. GW 1. S. 253ff.

12) Hermann Hesse: Peter Camenzind. GW 1. S. 448.

13) Hermann Hesse: Beim Einzug in ein neues Haus. GW 10. S. 141.

보다는 결혼 이전의 자연인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가이엔호펜에서의 전원생활의 꿈은 헤세의 방랑벽으로 인하여 깨졌으며 부부의 위기를 가져왔다. 헤세의 첫 부인이 정신병을 앓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헤세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헤세는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랑을 하였고 더욱 더 결혼생활을 하기엔 그는 타고난 자유분방함과 방랑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꿈과 상상 속에서 한 여인을 사랑하듯 베르누이와 결혼하였는데, 베르누이는 헤세보다는 훨씬 더 가정적이고 현실적이었다.

둘째 부인 루트 벵어 Ruth Wenger와의 결혼 생활도 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깨졌다. 니논 돌빈 Ninon Dolbin과 세 번째 결혼함으로써 비로소 헤세의 방랑벽은 어느 정도 치유되었으며 그는 외견상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것은 노년에 이르러 건강상의 안정과 휴식의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고 또한 그가 방랑보다는 은둔 생활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헤세와 세 부인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 위기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나이 면에서도 첫 부인은 헤세보다 9년 연상이고 둘째 부인은 20년, 셋째 부인은 18년 연하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고 서로 이성으로의 접근도 부자연스러웠을 것이다.

헤세의 여성과의 관계에 주로 영향을 미친 것은 헤세 자신의 성격 및 인생관인 것이 사실이지만,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헤세와 그의 어머니 마리 헤세 Marie Hesse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어머니가 헤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다. 마리 헤세가 아들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몹시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녀의 행위는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경건주의에 기초를 둔 신앙의 실천 행위로 볼 수 있다. 헤세가 어머니에게 바치는 헌시에는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한결 같이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신 분”¹⁴⁾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아들이 악에 물들지 않도록 종교적이며 경건주의적 훈육의 범위 안에서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였다. 여성적인 따뜻함, 모성적인 포근함이 그녀에게는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 헤세가 일생동안 도그마적인 기독교를 멀리하고 교회도 나가지 않은 것은 헤세 부모의 지나친 종교적 억압 때문이었다. 이런 견해는 몇몇 헤세 전문가들도 가지고 있다. 프리츠 뵘터거 Fritz Bottger는 마리 헤세를 “슈바벤의 마돈나”¹⁵⁾라고 했으며 후고 발 Hugo Ball도 “그녀의 사랑은 신으로부터 온 것이며 신을 위한 것이었고 인간에게 와서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의 자녀를 신의 피조물로 사랑했다”¹⁶⁾고 했다. 비록 헤세가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를 더 좋아했지만 종교적이고 비인간적인 사고와 가르침에 있어서는 두 사람 모두 다 같다.

헤세는 어머니로부터 따뜻한 인간적, 모성적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을 대하고 여성과 교류하는데 많은 장애를 겪었고 결혼 생활도 어려움에 처했다. 헤세의 어머니가 죽은 지 2년 후에 갖게 된 결혼에서 그는 어머니에게서 얻지 못했던 모성의 대리만족을 구했으나 베르누이 역시 마리 헤세와 같은 여자이었고 헤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와 소원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그의 첫 부인에게 헌정된 『붓꽃 Iris』에 잘 나타나 있다. 베른하르트 젤러 Bernhard Zeller는 “어머니와 아주 닮은, 자기 자신의 부인이 『붓꽃』이라는 작품의 인물 형상으로 나타났다”¹⁷⁾고 했다. 이 작품에서 보면 연상의 부인 이리스는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신경이 약하고 소극적이며 남편 안젤름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러한 어머니의 영향이 그의 초기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14) Hermann Hesse: Im Philisterland. GW 6. S. 177.

15) Vgl. Adele Gundert: Marie Hesse. Ein Lebensbild in Briefen und Tagebuchern. Stuttgart 1953. S. 280.

16) Fritz Bottger: Hermann Hesse. Berlin 1975. S. 23.

17) Hugo Ball: Hermann Hesse. Frankfurt/M. 1975. S. 65f.

18) Bernhard Zeller: Hermann Hesse in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menten. Reinbek bei Hamburg 1963. S. 52.

III.

헤세의 여성관에 영향을 준 사상이 어느 하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미 언급한 낭만주의적 사고 이외에 동양의 음양 이원론의 태극 사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¹⁹⁾ 그 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요한 야콥 바흐오펜 Johann Jakob Bachofen의 신화적 성격의 모권사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²⁰⁾ 그는 아테네, 이집트, 인도 등의 여러 원시 민족의 역사와 신화를 연구하는 가운데 그 근저에 여성적 시대가 지배했음을 알고 인류의 발전 유형을 3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는 제 1, 2 단계를 여성적이고 질료적인 ‘모성적 단계 matriarchalische Stufe’로 보았으며 제 3 단계는 남성적이고 정신적인 ‘부권적 단계 patriarchalische Stufe’로 보았다.

전반적으로 역사를 자연과 정신의 두 축으로 보고 자연에서 정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의 주장은 모권이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이었고 여러 원시 종족의 신화 속에는 인류에게 생명을 주고 지켜 주는 어머니가 대지의 대변자라는 것이다.²¹⁾ 헤세의 많은 작품에서 주인공이 대지에 문힘으로 영원한 여성에게로 돌아간다는 것도 바흐오펜의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 비록 바흐오펜이 모권을 인정하면서도 남성 중심적 ‘여성’ 만 들기를 꾀한다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²²⁾ 헤세는 모권을 긍정적이고 문학적으로 미화하였다. 헤세는 토마스 만 Thomas Mann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나의 혈통은 모성적이고 내가 근원적으로 여기고 확신하는 것은 자연”²³⁾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바흐오펜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바흐오펜의 모권론이 최근 들어 여성운동이 일어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고 ‘바흐오펜 르네상스’라는 말까지 생겨났는데, 이것은 인류의 최초에는 모권이 지배했었으며 어머니로 대표되는 여성이 중심이라는데 그 주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영향은 칼 구스타프 융 C. G. Jung의 심리학을 통한 영향이다. 헤세는 정신적, 감정적 및 경제적으로 심한 장애를 겪었는데, 그는 이 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1916년 융의 제자인 요제프 베른하르트 랑 Josef Bernhard Lang 박사에게 심리 분석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는 랑 박사로부터 약 60회에 걸쳐 심리학적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동안 그를 억눌렀던 노이로제와 긴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랑 박사의 심리 치료를 전후해서 헤세는 심리학에 심취하였고 『예술가와 심리 분석 Künstler und Psychoanalyse 1918』과 『심리 분석에 관하여 Über Psychoanalyse 1919-1922』라는 글을 썼으며 1931년에는 융의 『영혼의 실재성 Wirklichkeit der Seele』의 서평을 쓰기도 했다.

융은 지그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의 이론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심리 분석의 일가를 이루었다. 융의 정신 분석 이론은 억압, 승화 및 대상 (代償)의 심적 메카니즘이 한 주류를 이루고, 또 다른 주류는 인간의 보편적인 성충동으로 일체의 심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 Die Traumdeutung』에서 꿈이나 히스테리는 억압된 리비도 libido의 변태적 만족이라고 하였으나 융은 꿈을 자제된 무의식이 투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인간에게는 무의식과 의식이 공존하는데 의식은 무의식이라는, 그림자 Schatten로 흔히 나타나는, 큰 빙산의 일각으로써 이 무의식을 받아들이고 의식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무의식과 의식이 서로 생동감 있고 평등하게 작용할 때, 온전하고 조화로운 상태로 보았다. 이런 과정을 가리켜 그는 ‘자기실현 Selbstverwirklichung’ 또는 ‘개인화 과정 Individuationsprozeß’라고 하였다. 이런 ‘자기실현’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형상을 ‘자기 원형 Archetyp des Selbst’이라고 한다. 이런 ‘자기 원형’은 남자의 경우에는 그 속에 여성

19) 여기에 대해서는 이인웅: 헤르만 헤세와 동양의 지혜. 도서출판 두레 2000; Adrian Hsia: Hermann Hesse und China. Frankfurt/M. S. 1974. 참조.

20) J. J. Bachofen(1815-1887)은 바젤의 로마법을 연구하는 교수로서 고대사, 신화 및 묘지상징 연구에 심취하였다. 그는 특히 고대인들의 묘지 상징에 대한 것과 모권에 관한 글을 썼다.

21) J. J. Bachofen: Mutterrecht und Religion. 6., erw. Aufl. Stuttgart 1984. S. 146.: “In den mitgeteilten Mythen wird das Weib der Erde gleichgestellt.”

22) 김륜옥: ‘태모 Große Mutter’ 다르게 읽기. 헤세 연구(1) 1998. S. 253ff. 참조.

23) Anni Carlsson(Hrsg.): Hermann Hesse- Thomas Mann Briefwechsel. Frankfurt/ M. 1975. S. 26.

적인 것, 아니마 Anima가 여자의 경우에는 그 속에 남성적인 것, 아니무스 Animus가 있다는 것이다. 양성이 공조하며 서로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이상적인 관계, 즉 양극의 전일성 내지 합일성이 자기실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중요한 사실은 헤세가 랑 박사로부터 심리 치료를 받고 융의 심리학에 심취하면서 그의 작품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세계 제 1 차 대전이라는 시대 정치적인 요소, 표현주의의 대두는 이런 변화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였다. 그 중에서도 융의 심리학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헤세 자신이 융의 심리학적 이론을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환상적 철학과 삶의 형태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헤세는 융의 이론을 예술가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융의 심리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헤세의 작품을 해석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하여튼 이 때부터 헤세가 쓴 작품에서 등장하는 여성상은 그전의 작품 속의 여성상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더 나아가 작품의 성격도 그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그는 이 이상 더 『페터 카멘진트』나 그 밖의 초기 산문들과 같이 절대 도덕이나 선악을 가리는 그런 작품을 쓰고 싶지 않았다.²⁴⁾ 헤세가 융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쓴 작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데미안 Demian』인데 주인공 싱클레어 Sinclair는 밝고 이성적인 부모의 세계, 의식의 세계에 살다가 서서히 내면의 무의식의 세계, 꿈과 충동과 선과 악과 소원의 세계를 자각하게 된다. 의식과 무의식의 갈등은 주인공에게 혼란과 갈등을 주고, 심적 분열을 초래한다.

내 자신 속에는 허용되고 밝은 세계에서 속으로 기어들어 가고 숨어 있는 원초적 충동이 살아 숨쉬는 것을 새롭게 발견해야만 했던 몇 년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듯이 비유를 통해 비로소 싱클레어의 무의식이 깨어나며 자기 자신의 길과 자아실현의 길을 걷게 된다. 그는 데미안을 통하여 아프락사스를 알게 된다. 오직 선한 신, 유일신만을 믿던 싱클레어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의 합일인 아프락사스를 받아들임으로써 완전성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싱클레어는 단일적 사고에서 전일적 사고로의 전환을 하게 된다. 그는 선과 악,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남자와 여자, 성스러움과 속됨의 경계를 허물고 두 세계에 대한 안목을 갖게 되었다.

싱클레어는 공원에서 만난 베아트리체라고 명명한 한 여인의 모습을 그리려고 무던히 애쓴다. 그는 무의식에서 나온 선을 그어 그녀의 얼굴을 그렸다. 그녀는 받은 여자이며 받은 남자였다.

내 자신 속에는 허용되고 밝은 세계에서 속으로 기어들어 가고 숨어 있는 원초적 충동이 살아 숨쉬는 것을 새롭게 발견해야만 했던 몇 년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듯이, 나에게도 성에 눈 뜨는 감정이 적이나 파괴자, 금지된 것으로, 유혹과 죄악으로 엄습해 왔다. [...] 그와 함께 나는 은밀한 꿈과 충동과 소원 속에 살았다. 그 위로 저 의식적인 삶이 늘 불안한 가교를 놓았는데,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세계가 와해되었기 때문이다.

Es kamen die Jahre, in welchen ich aufs neue entdecken mußte, daß in mir selbst ein Urtrieb lebte, der in der erlaubten und lichten Welt sich verkriechen und verstecken mußte. Wie jeden Menschen, so fiel auch mich das langsam erwachende Gefühl des Geschlechts als ein Feind und Zerstörer an, als Verbotenes, als Verführung und Sünde. [...] Mein Bewußtsein leugnete die empordammernde neue Welt. Daneben aber lebte ich in Traumen, Trieben, Wünschen von unterirdischer Art, über welches jenes bewußte Leben sich immer angstlichere Brücken baute, denn die Kinderwelt in mir fiel zusammen.²⁵⁾

그것은 소녀의 얼굴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젊은이의 얼굴 같았다. 머리는 아릿다운 아가씨와 같은 밝은 갈색이 아니었고 붉은 빛 도는 갈색의 피부를 가졌고, 턱은 강하고 단단했으며, 입은 붉게 피어나고, 전체는 좀 덩덤하고 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인상적이었고 비밀스런 삶으로 충만했다.

Es sah mehr wie ein Junglingskopf aus als wie ein Mädchengesicht, das Haar war nicht hellblond wie bei einem hübschen Mädchen, sondern braun mit rotlichem Hauch, das Kinn war stark und fest, der Mund

24) Hesses Brief an Carl Seelig um 1919. In: Ursula und Volker Michels(Hrsg.): Gesammelte Briefe. Bd. 1. Frankfurt/M. 1973. S. 423f.

25) Hermann Hesse: Demian. GW 5. S. 49.

aber rotblühend, das Ganze etwas stief und maskenhaft, aber eindrucklich und voll von geheimem Leben.²⁶⁾

그 그림은 베아트리체 같기도 하고 데미안 같기도 하였으나 싱클레어 자신이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내면이고 운명이며 마성이었다.²⁷⁾

『나르치스와 골트문트』의 헤르미네 Hermine는 주인공 할러 Haller 속에 숨겨진 무의식적인 존재의 일부분이다. 이것은 “그대는 나와는 완전히 달라! 그대는 나의 반대 부분이야. 그대는 나에게 결여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²⁸⁾라는 할러의 말 속에서 잘 알 수 있다. 헤르미네는 할러의 숨겨진 무의식의 한 부분이다. ‘헤르미네’라는 이름은 ‘헤르만’이라는 이름을 연상케 하는데 작가 헤르만의 잠재된 여성상일 수 있다. 이런 아니마뿐만 아니라 여성 속에 숨겨진 남성, 그러니까 남성적 여성의 모습을 『데미안』의 에바 부인에게서 찾을 수 있다. 에바 부인은 “거의 남성적인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아들을 닮은”²⁹⁾ 아니무스의 모습을 띄고 있다.

이렇듯 헤세의 자기실현에 이르는 길은 그림자를 극복하고³⁰⁾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만남을 통해 양성을 이해하든지 양면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융의 무의식과 의식, 아니마와 아니무스, ‘자기원형’등의 이론이 다분히 동양의 음양 이원 사상이나 도 사상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물론 융 자신이 동양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또 구체적으로 음 양이라는 용어로 그의 심리 분석 이론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는 여성을 음의 존재로 설명하기도 하였다.³¹⁾ 음양 이원론은 그 기본 원리가 그림(☯)과 같이 태극이 양과 음으로 나뉘어져 있고 음에는 양핵이, 양에는 음핵이 자리하고 있다.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보고 남성 속에 여성적인 것이, 여성 속에는 남성적인 것이 있다는 사상적 뿌리는 결국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융의 심리학에서나 동양의 태극 사상에서는 이런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두 사상의 핵심은 모두 완성이나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이런 양면적이고 양성적인 것을 하나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데 일치한다.

IV.

헤세의 작품에는 많은 여성이 등장한다. 작품 이름이나 주인공들이 거의 다 남성이지만, 이 남성은 우주에서 지구로 내려 온 외계인처럼 여성에 의해 보살핌을 받고 정신적으로 성장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그는 여러 유형의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친구, 애인, 스승, 부인, 어머니 등의 역할을 한다. 그들은 성적 파트너가 되고, 때론 생의 동반자로, 때론 교사로, 때론 이상화된 여성이 된다.

초기 작품에 나오는 여성들은 대개 짝사랑의 대상이며 청순형이다. 이런 여성은 마치 높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은 접근할 수 없는 고고한 여성이다.

높은 하늘에 떠 있는
흰 구름과 같이
그대, 엘리자베트

26) Hermann Hesse: Demian. GW 5. S. 82.

27) Vgl. Ebd. S. 84.

28) Hermann Hesse: Der Steppenwolf. GW 7. S. 296.

29) Hermann Hesse: Demian. GW5. S. 129f.

30) 『데미안』의 크로머 Franz Kromer, 『클라인과 바그너 Klein und Wagner』의 바그너, 『어린영혼 Kinderseele』의 오스카 베버 Oskar Weber 등을 들 수 있다.

31) Carl Gustav Jung: Gesammelte Werke. Bd. 9/1. Olten/Freiburg i. Br. 1971. S. 111.

그대는 희고 아름답고 멀기만 하오.
 Wie eine weiße Wolke
 Am hohen Himmel steht,
 So weiß und schon und ferne
 Bist du, Elisabeth.³²⁾

여기에는 『페터 카멘진트』의 뢰지 기르타너 Rosi Girtanner, 『한밤중 뒤의 한 시간』의 게르트루트 Gertrud 같은 청순형들이 여기에 속한다.

또 다른 형은 유혹하는 여성을 들 수 있다. 『피리의 꿈 Der Flotentraum』의 부리기테 Brigitthe는 세속적 삶의 유혹자다. 이 관능적인 여성, 유혹하는 여성은 남자들을 순진무구한 인간 형성의 첫 단계에서 악을 아는 제 2 단계로 이끈다. 그녀는 정신의 세계만 알고 그것을 유일하게 여기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연의 세계에 눈뜨게 하고 이 세계를 극복하게 하여 결국 완성으로 이끈다. 『클라인과 왓그너 Klein und Wagner』의 테레지나, 『싯타르타 Siddhartha』의 카말라, 『황야의 이리 Der Steppenwolf』의 마리아, 『나르치스와 골트문트』의 뢰디아나 리스베트를 제외한 많은 여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결혼 생활의 위기, 특히 예술가 부부의 위기를 몸소 체험한 헤세는 아내의 모습을 부정적이고 위기의 여자로 그리고 있다. 『로스할데 Roßhalde』의 베라구트 부인 Frau Veraguth이 그 전형적인 예다. 이들은 용의 개념으로 보면 모두 비 자기원형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가정, 아이, 예술에만 심취하고 남편에게는 관심이 없다. 한 쪽 성에 무관심하여 야기된 불행의 모습을 헤세는 보여 주고 있다.

유혹하고 관능적인 여성 가운데서도 헤르미네나 카말라의 경우에는 관능에 앞서 남성을 가르쳐 주고 이끄는 역할이 두드러진다. 『수레바퀴 아래서 Unterm Rad』의 엠마 Emma나, 『나르치스와 골트문트』에서 처음 골트문트가 밤에 수도원을 빠져나와 만난 마을 아가씨나 『싯타르타』의 카말라는 모두 사랑의 초보자인 남자 주인공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성적으로 눈뜨게 했으며 교육시켰다.

헤세 작품에 나오는 여성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특징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초기 작품에서의 여성들은 자유분방하거나 남성들이 우리러 보는 대상으로 나타나기 일쑤다. 그의 초기 작품에는 여성이 동경의 대상이다. 『페터 카멘진트』에서 여성은 낮설고 아름답고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나타난다.

사랑에 대해 말한다면 - 나는 일평생 소년에 불과했다. 여인에 대한 사랑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기도 같은 것이었다. 어머니로부터 또 자신의 불확실한 감정으로 인해서 나는 여자를 통털어서 낮설고 아름답고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존경해 왔다. 여성은 타고난 아름다움과 본질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우월하며 별이나 푸른 산봉우리처럼 우리에게서 멀고 신에게는 더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스럽게 여겨야 했다. 게다가 거친 삶에 겨자가 주어졌으므로 여인의 사랑은 달콤한 것 보다는 더 쓴 것을 가져 왔다. 여인의 모습이 높은 단위에 세워져 있지만 기도하는 목사의 장엄한 역할은 고통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바보 노릇하는 바보로 바뀌었다.

Um von der Liebe zu reden - darin bin ich zeitlebens ein Knabe geblieben. Für mich ist die Liebe zu Frauen immer ein reinigendes Anbeten gewesen, eine steile Flamme meiner Trube entlodert, Beterhande zu blauen Himmeln emporgestreckt. Von der Mutter her und auch aus eigenem, undeutlichem Gefühl verehrte ich die Frauen insgesamt als ein fremdes, schönes und ratselhaftes Geschlecht, das uns durch eine angeborene Schönheit und Einheitlichkeit des Wesens überlegen ist und das wir heilig halten müssen, weil es gleich Sternen und blauen Berghohen uns ferne ist und Gott näher zu sein scheint. Da das rauhe Leben seinen reichlichen Senf dazu gab, hat die Frauenliebe mir so viel Bitteres als Süßes eingebracht; zwar blieben die Frauen auf dem hohen Sockel stehen, mir aber verwandelte sich die feierliche Rolle des anbetenden Priesters allzuleicht in die peinlich-komische des genarrten Narren.³³⁾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 카멘진트에게 있어서 여인은 아름답고 성스러워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32) Hermann Hesse: Elisabeth. GW 1. S. 15.

33) Hermann Hesse: Peter Camenzind. GW 1. S. 366.

외경과 동경의 대상이다. 그녀는 사제와 같이 성스럽고 여왕과 같이 높은 존재다.³⁴⁾ 주인공은 기르타너를 청순한 사랑의 화신으로 여기고 위험한 절벽 위에 올라가 생명의 위험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녀에게 꽃을 바치며 그런 청순한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그야말로 “여인의 우상화”³⁵⁾가 이뤄진다. 이런 여성은 그래서 반감까지 사게 하고 또 불신까지도 가져온다. 그런 여성들은 남자들의 짝사랑의 고통을 즐긴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³⁶⁾

헤세뿐만 아니라 헤세의 주인공들은 이런 병적인 비현실적인 여성관에서 벗어나 점차 건강하고 조화 있는 여성관을 갖게 된다. 심리 분석 치료를 받고 난 후의 작품 『데미안』에서는 이런 여인에게 기도하는 것 같은 숭배의 사랑이 사라지고 여성을 이성으로, 성적 파트너로 조화 있는 완숙한 사랑관을 갖게 된다.

사랑은 처음에 불안스럽게 느낀 것처럼 이제는 이 이상 더 동물적 어두운 충동이 아니었고 또한 베아트리체 상에게 바쳤던 이 이상 더 경건한 정신화 된 기도도 아니었다. 사랑은 둘 다였고 그보다 더 많았다. 사랑은 천사의 모습이자 악마였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였고, 인간과 동물, 지고의 선과 극단의 악이었다.

Liebe war nicht mehr tierisch dunkler Trieb, wie ich sie beangstigt im Anfang empfunden hatte, und sie war auch nicht mehr fromm vergeistigte Anbeterschaft, wie ich sie dem Bilde der Beatrice dargebracht. Sie war beides, beides und noch viel mehr, sie war Engelsbild und Satan, Mann und Weib in einem, Mensch und Tier, höchstes Gut und äußerstes Böses.³⁷⁾

선악을 넘어서고 성스러움과 속됨의 경계를 넘어설 때 자아실현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헤세의 남성 주인공들의 완성의 종착점에는 늘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나 영원한 여성과의 만남이 있다.

여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흔히 물이나 눈 등을 들 수 있는데, 헤세 작품의 주인공들은 나중에 물에 빠져 죽거나 눈 속에서 안식을 얻는다. 『데미안』, 『수레바퀴 아래서』, 『싯타르타』, 『클라인과 바그너』, 『유리알 유희 Das Glasperlenspiel』의 주인공들이 물에 빠져 죽고 크눌프는 눈 덮인 대지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모든 남성 주인공들은 여성으로, 더 나아가 여성을 대표하는 어머니로 향하는 도중에 있던지, 결국 어머니 품으로 돌아간다. 싱클레어는 “저는 저의 생애동안 늘 찾아 헤매었습니다. 이제 저는 집에 돌아 왔습니다.”³⁸⁾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때 그는 그녀의 눈빛은 완성이었고 그녀의 인사는 귀향임을 확인하였다.

『데미안』의 에바 부인이나 『나르치스와 골트문트』의 에바-어머니 Eva-Mutter 같은 어머니 상은 모든 남성들이 꿈꾸었던 여성상이며 추구의 대상이다. 또한 이 어머니 상은 모든 남성들이 그녀에게서부터 태어나서 그녀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영원한 순환의 중심축이다.

나르치스는 마리아 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수많은 여성을 만났다. 이름 모를 시골 아가씨와 소녀, 리제, 뒤디아, 레네, 리스베트, 레베카, 애 낳는 여자, 아그네스 등 수 없이 많은 여성이 모여 마리아 상의 윤곽을 만들었다.³⁹⁾ 그가 어린 소년에서 노인이 될 때까지 영원한 여성이나 어머니를 찾아 떠나는 긴 여정을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과의 전일적 체험이 없었다면, 그는 전혀 마리아 상을 제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헤세의 여성상은 그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사상에 있어서 바흐오펜의 모권론에 영향을 받고 융의 무의식과 의식, 자기원형 이론 그리고 동양 철학, 낭만주의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상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영원히 여성

34) 이런 여성은 『한밤중 뒤의 한 시간』에도 잘 나타나 있다. Vgl. Hermann Hesse: Eine Stunde hinter Mitternacht. GW 1. 165.

35) Joseph Mileck: Hermann Hesse - Dichter Sucher Bekenner. Munchen. 1979. S. 204.

36) Vgl. Hermann Hesse: Peter Camenzind. GW 1. S. 450.: “Denn trotz meiner italienischen Erfahrung hatte ich immer noch ein leises Mißtrauen gegen die Frauen, als mußten sie an den hoffnungslosen Qualen der in sie verliebten Männer ihre grauseme Freude haben.”

37) Hermann Hesse: Demian GW 5. S. 95.

38) Ebd. S. 138..

39) 안겔로즈 Angeloz 역시 헤세의 작품에서 여성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또 어머니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랑과 예술이 필요하였다고 하였다. Vgl.. F. J. Angeloz: Das Mutterliche und das Männliche im Werke Hermann Hesses. 1951. S. 17f.

적인 것, 영원한 여성은 모든 여성의 상징적인 어머니이며, 융의 개인화 과정에서 자연을 대표하는 ‘태모’와 같은 것이다. 헤세의 삶과 작품은 여성의 발견으로 시작하여, 여성 예찬을 거쳐 영원한 여성으로의 귀향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I. Primärliteratur

Hesse, Hermann: Gesammelte Werke in 12 Banden. Frankfurt/M. 1970. ders. : Gesammelte Briefe. 3 Bde. Frankfurt/M. 1973ff.

Hesse, Ninon(Hrsg.): Kindheit und Jugend vor Neunzehnhundert. 2 Bde. Frankfurt/M. 1966 & 1977.

Carlsson, Anni(Hrsg.): Hermann Hesse - Thomas Mann Briefwechsel. Frankfurt/M. 1975.

II. Sekundärliteratur

김륜옥: “태모 **Große Mutter**” 다르게 읽기. 헤세 연구(1) 1998.

박광자: 헤세의 소설과 융(Jung) 심리학. 헤세 연구(1) 1998.

알로이스 프린츠: 헤르만 헤세. 이한우 역. 도서출판 더북 2002.

이인웅: 헤르만 헤세와 동양의 지혜. 도서출판 두레 2000.

Angelloz, F. J.: Das Mutterliche und das Mannliche im Werke Hermann Hesses. 1951.

Bachofen, J. J.: Mutterrecht und Religion. 6., erw. Aufl. Stuttgart 1984.

Baerhausen, Eugen: Der Dualismus von Geist und Sinnlichkeit im Hermann Hesses Werk. Diss. Berlin 1952.

Ball, Hugo: Hermann Hesse. Frankfurt/M. 1975.

Baumann, Gunter: Hermann Hesses Erzählungen im Lichte der Psychologie C. G. Jungs. Berlin 1989.

Bottger, Fritz: Hermann Hesse. Berlin 1975.

Gontrum, Peter Baer: Natur- und Dingsymbolik als Ausdruck der inneren Welt Hermann Hesses. Diss. Munchen 1958.

Gundert, Adele: Marie Hesse. Ein Lebensbild in Briefen und Tagebuchern. Stuttgart 1963.

Hsia, Adrian: Hermann Hesse und China. Frankfurt/M. 1974.

Jung, Carl Gustav: Gesammelte Werke. Olten/Freiburg i. Br. 1971.

Kluckhohn, Paul: Das Ideengut der deutschen Romantik. Halle/Saale 1941.

Lutzkendorf, E. A. Felix: hermann Hesse als religiöser Mensch in seinen Beziehungen zur Romantik und zum Osten. Diss. Leipzig 1932.

Mileck, Joseph: Hermann Hesse - Dichter Sucher Bekenner. Munchen. 1979.

Schmid, Hans Rudolf: Hermann Hesse. Frauenfeld 1928.

Weibel, Kurt: Hermann Hesse und deutsche Romantik. Diss. Winterthur 1954.

Zeller, Bernhard: hermann Hesse in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menten. Reinbek bei Hamburg 1963.

◆ Zusammenfassung

Das Frauenbild bei Hermann Hesse

Soon-Kil Hong (Mokwon Uni.)

Der Umgang mit Frauen spielt eine wichtige Rolle im Leben und im Werk Hesses. Er wuchs unter den beiden Schwestern auf und neigte immer inniger zur Mutter als zum Vater. Der Held seiner Werke von den fruheren Werken bis zu den spateren, der anfangs in der Beziehung zu Frauen bloß ein Knabe war, geht den Weg, sei es im Unbewußtsein oder Bewußtsein, die Mutter zu suchen, zu lieben und infolge dessen sich zu verwirklichen.

Als Dichter, der die Kunst eine Vereinigung von vaterlicher und mütterlicher Welt sah, verstand er alles im Rahmen einer gegensatzlichen Einheit; Tag und Nacht, Geist und Natur, Gut und Bose u.a.

Hesses Weg zu Frauen hat folgende Entwicklungsphase. Als Kind war er der Mutter abhängig, als Jungling verliebte er sich ohne Gegenliebe, als literarischer Schwärmer bemühte er sich um Gunst der Göttin Muse. Am Ende der Entwicklungsphase wartet das Ewig-Weibliche oder die 'Große -Mutter' auf den Dichter.

Anfangs war er sowie sein Held sehr scheu und schuchtern, jedesmal wenn er den Frauen begegnete, stand er unter dem schlechten Einfluß seiner Mutter Marie Hesse, was man verstehen kann. Die auf dem schwabischen Pietismus betonte Erziehung seiner Eltern laßt ihn mit einer engen christlichen Moral verklavt sein und aus dessen Folge war er in seiner Betrachtungsweise in Schwarz-und-Weiß.

Seine Fruhwerke, zum Beispiel *Eine Stunde hinter Mitternacht*, *Hermann Lauscher* u.a., gehören dazu. Erst nach der Behandlung der Psychoanalyse und der Lektüren der ostasiatischen Philosophie wurde er frei von den Hemmungen. In *Demian* kommt Sinclair zum Bewußtsein, dass in seinem Unterbewußtsein Traume, Triebe und Wunsche wohnen. Das Bild von Abraxas und Beatrice, das die Gegensatze umfaßt und sie in eine Ganzheit fuhr, ist ein überzeugendes Symbol der Selbstverwirklichung.

Das Frauenbild Hesses wurde vor allem von dem Gedanken des Mutterrechts von Bachofen motiviert. Die Frau, die meistens als 'ewige Mutter' symbolisiert wird, fand sich Hesse bei ihm. Dass der Einfluß des romantischen Frauenbildes nicht außer Achtung sei, sollte aber auch dabei nicht vergessen werden. Auf Basis diesen Gedankengutes spielte die Psychologie von Jung und die Philosophie von Yin-Yang eine entscheidende Rolle.

Das Leben und Werk Hesses beginnt mit dem Umgang mit den Frauen, der Sehnsucht nach ihr und endet mit der Ruckkehr zur Ewigen Mutter.

【주제어】 바흐오펜, 융, 영원한 여성

【Schlüsselbegriffe】 Bachofen, Jüng, ewige Mütter

【필자 이메일 주소】 honghessa@hanmail.net